

2026.07.24.

2026년 상반기 유동화증권 발행시장 분석

이성일 SF1실 수석연구원
02.368.5671
silee@korearatings.com

김종각 SF1실장
02.368.5616
wewe@korearatings.com

❖ Summary

한국기업평가(이하 'KR')는 유동화증권 발행통계를 반기 단위로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 DATA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자산유형은 KR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 2026년 상반기 유동화증권 발행시장 현황

2026년 상반기 유동화증권 총 발행금액은 373.6조원으로 전년 동기(324.7조원) 대비 15.1% 증가하였다. ABCP와 ABSTB 등 단기 유동화증권이 349.8조원(14.8% 증가), 한국주택금융공사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이하 'KHFC MBS')가 9.3조원(139.0% 증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장기 유동화증권(유동화 전문회사 발행 ABS 및 상법상 유동화회사 발행 AB사채)은 14.5조원(9.2% 감소)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다.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장기물에 대한 투자수요 위축으로 2026년 상반기 장기 유동화증권 발행은 감소하였다. 다만, 금리변동성 확대 등으로 단기물 및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등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면서 단기 유동화증권 및 KHFC MBS 발행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6년 6월말 현재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은 378.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하였다.

■ 장기 유동화증권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ABS는 2025년 상반기 7.2조원이 발행되어 전년 동기 대비 34.0% 감소하였다. 반면, 상법상 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AB사채는 7.3조원이 발행되어 전년 동기 대비 44.5% 증가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KHFC MBS는 2026년 상반기 9.3조원이 발행되어 전년 동기 대비 139.0% 증가하였다.

2026년 상반기 ABS 발행은 장기물 투자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감소한 반면, AB사채 발행은 증가하였다. AB사채는 미공시 비중이 72.9%로 높아 정확한 발행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으나, 기존 유동화 익스포저의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및 만기 연장 수요가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추정된다.

■ 단기 유동화증권

단기 유동화증권의 대부분은 상법상 유동화회사들에 의해 발행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단기 유동화증권은 ABCP 152.8조원, ABSTB 197.0조원 등 총 349.8조원이 발행되어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하였다.

동일한 회사에서 발행한 단기 유동화증권을 1회만 집계하여 최대 발행 금액을 산정해보면, 2026년 상반기 총 201.0조원이 발행되어 전년 동기(총 발행금액 184.6조원) 대비 8.9% 증가하였다. 유동화증권 별로 살펴보면, ABCP는 총 108.3조원(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이 발행되었으며, ABSTB는 총 92.7조원(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이 발행되었다.

단기 유동화증권 발행이 증가한 것은 유동화증권 만기 단기화에 따라 차환발행이 증가하고, 시중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단기 유동화시장 활용 수요가 확대되어 CDO 및 카드구매대금채권 유동화를 중심으로 발행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 착공 및 분양이 이루어져 부동산PF 발행이 확대된 것도 단기 유동화증권 발행 증가에 기여하였다.

■ 2026년 상반기 요약 및 2026년 하반기 전망

2026년 상반기 유동화증권 시장에서는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의 듀레이션 부담 증가로 장기 유동화증권 발행이 감소한 반면, CDO 및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단기 유동화증권 발행은 증가하였다. CDO는 유동화증권 만기 단기화에 따른 차환발행 증가 등이 발행을 뒷받침하였고, 부동산 PF 유동화는 PF 사업장의 만기연장·재구조화 및 일부 사업장의 본 PF 전환에 따른 자금수요가 발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시중금리 상승으로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의 상대적 매력도 부각되면서 MBS 발행도 확대되었다.

2026년 하반기에는 물가, 환율, 주택가격 등 금융안정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리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유동화증권 발행 여건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과정에서의 차환 및 신규자금 공급 수요, 회사채시장의 순상환 기조 지속, 비우량 기업의 유동화시장 조달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 PF 및 CDO 발행 감소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CONTENTS

1. 유동화증권 현황.....	5
2. 장기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8
3. 단기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13
4. 2026년 상반기 요약 및 2026년 하반기 전망.....	18

유동화증권 발행현황 집계자료 변경

당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시장 분석 보고서는 실제 유동화증권 발행 DATA(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표 DATA를 당사에서 가공)를 집계하며 자산유형은 KR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유동화증권을 ABS(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AB사채(상법상 유동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ABSTB, ABCP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인 MBS (Mortgage-Backed Securities,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이하 ‘KHFC MBS’)로 구분하였다. ABSTB와 ABCP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기는 하지만, 금융 규제상 이유 등으로 발행절차가 상이하고 증권별 특성이 달라 별도로 구분하였다.

2023년 발행시장 분석보고서부터 유동화 자산구분을 변경하였다. 기존에 총 10개 군으로 구분하던 자산유형을 7개 군으로 조정하였다. 주요 변동사항은, “신용카드” 중 최근 발행물량이 증가한 “카드구매대금”을 분리하였으며, 채무자의 속성이 비슷한 “오토론”, “리스” 및 “카드구매대금”을 제외한 “신용카드”를 “소비자금융”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기타” 및 “NPL”을 자산 속성이 유사한 “CDO”로 통합하였다. 동 자산구분에 따른 통계는 2022년 자료부터 집계하여 표기하고 있다.

한편, 단기 유동화증권의 경우 총 발행금액을 합산하여 집계하고 있으나, 증권 만기일에 차환 발행되는 비중이 높아 총 발행금액을 단순히 합산하면,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단기화 될수록 해당 유형의 통계량이 과대 집계될 수 있다. 따라서, 단기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에서는 유동화회사 별 최대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1회만 집계하도록 보정하여 발행금액 규모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통계 산정의 주요 가정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 분석대상: 유동화증권 발행현황(자산유동화대출, ABL; Asset Backed Loan 제외)
- 장기 유동화증권(ABS 및 AB 사채):
 - 발행건수: 발행회사, 발행일이 동일한 경우 동일 건으로 집계
 - 발행기간 및 신용등급 별 발행금액: 유가증권 건별로 집계
- 단기 유동화증권(ABCP 및 ABSTB):
 - 발행회사, 발행일, 만기일이 모두 동일한 경우 동일 건으로 집계
 - 동일 회사에서 발행한 유동화증권이 만기도래하여 차환발행하는 경우 개별 건으로 집계
- 단기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차환발행 보정)
 - 유동화회사가 발행한 금액을 연간 1회만 집계(차환발행금액은 제외)
 - 유동화회사가 연간 수차례 발행하고 발행금액이 서로 상이할 경우 최대 발행 금액 을 기준

1. 유동화증권 현황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2026년 상반기
유동화증권 발행액:
373.6조원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

2026년 상반기 유동화증권 총 발행금액은 373.6조원으로 전년 동기(324.7조원) 대비 15.1% 증가하였다. ABCP와 ABSTB 등 단기 유동화증권이 349.8조원(14.8% 증가), KHFC MBS가 9.3조원(139.0% 증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장기 유동화증권(유동화전문회사 발행 ABS 및 상법상 유동화회사 발행 AB사채)은 14.5조원(9.2% 감소)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다.

2026년 상반기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회사 수(KHFC MBS 는 발행건수)는 2,993개로 전년 동기(2,869개) 대비 4.3% 증가하였다. 장기 유동화증권 발행회사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4% 감소하였으나, KHFC MBS 발행건수(114.3% 증가)와 단기 유동화증권 발행회사 수(7.1% 증가)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

2026년 상반기 장기 유동화증권 발행은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장기물에 대한 투자수요 위축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금리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고자 하는 수요가 단기물 및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유입되면서 단기 유동화증권 및 KHFC MBS 발행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단위: 억원, 개, %)	
장기 유동화 증권	발행금액	385,522	330,166	266,679	267,340	335,948	160,223	145,424
	(증감율)	1.4	-14.4	-19.2	0.2	25.7	46.2	-9.2
	발행회사수	1,228	1,106	720	676	850	389	329
	(증감율)	15.4	-9.9	-34.9	-6.1	25.7	53.1	-15.4
KHFC MBS	발행금액	344,644	150,253	334,035	164,611	106,803	39,052	93,346
	(증감율)	-26.0	-56.4	122.3	-50.7	-35.1	-61.5	139.0
	발행건수	26	20	36	24	17	7	15
	(증감율)	-33.3	-23.1	80.0	-33.3	-29.2	-46.2	114.3
단기 유동화 증권	발행금액	4,572,315	5,049,805	4,471,182	4,366,100	6,447,351	3,047,308	3,497,664
	(증감율)	14.1	10.4	-11.5	-2.4	47.7	50.0	14.8
	발행회사 수	4,108	4,251	3,597	3,181	3,476	2,473	2,649
	(증감율)	25.8	3.5	-15.4	-11.6	9.3	4.7	7.1
합계	발행금액	5,302,481	5,530,224	5,071,896	4,798,051	6,890,102	3,246,583	3,736,434
	발행회사(건)수	5,362	5,377	4,353	3,881	4,343	2,869	2,993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취합 후 당사 재가공, 이하 자료원 동일

한편, 단기 유동화증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금융시장 불안 시 차환 부담이 확대되어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상승시키는 등 채권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최근 유동화증권 시장은 ABSTB와 ABCP를 중심으로 단기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만기구조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장기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법상 유동화회사
비중이 절대적**

유동화증권 발행실적을 살펴보면, KHFC MBS를 제외한 유동화증권 가운데 상법상 유동화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발행금액과 발행건수 기준 모두 96%를 상회하여 유동화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법상 유동화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에 비해 설립 및 발행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채권(단말기 할부채권), 오토론 등 자산유동화법상 특례의 활용 필요성이 높은 자산을 중심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용되고 있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표 2] 유동화회사 형태별 유동화증권 발행 실적

(단위: 억원, 개,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5.1H	26.1H
발행 금액	유동화전문회사	173,473	159,306	185,686	185,668	237,159	127,676	89,390
	상법상유동화회사	4,784,364	5,220,666	4,552,176	4,447,771	6,546,141	3,079,855	3,553,698
	소계	4,957,837	5,379,971	4,737,861	4,633,440	6,783,299	3,207,531	3,643,088
	(상법상유동화회사 비중)	96.5	97.0	96.1	96.0	96.5	96.0	97.5
	KHFC MBS	344,644	150,253	334,035	164,611	106,803	39,052	93,346
합계		5,302,481	5,530,224	5,071,896	4,798,051	6,890,102	3,246,583	3,736,434
발행 회사(건) 수	유동화전문회사	91	91	114	120	134	67	61
	상법상유동화회사	5,245	5,266	4,203	3,737	4,192	2,795	2,917
	소계	5,336	5,357	4,317	3,857	4,326	2,862	2,978
	(상법상유동화회사 비중)	98.3	98.3	97.4	96.9	96.9	97.7	98.0
	KHFC MBS	26	20	36	24	17	7	15
합계		5,362	5,377	4,353	3,881	4,343	2,869	2,993

유동화증권 잔액 현황

2026년 상반기
유동화증권
발행잔액:
378.6조원

2024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유동화증권 미상환 잔액(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유동화증권 중 미상환 금액)은 2026년 상반기에 378.6조원(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으로 2025년말 대비 2.0% 감소하였다.

2026년 6월 말 기준 채권 유형별 잔액을 보면, KHFC MBS가 125.4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BCP와 장기 유동화증권의 잔액은 각각 97.0조원으로 동일한 수준이며, ABSTB가 59.3조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3] 유동화증권 잔액 현황

(단위: 억원, 개,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5.1H	26.1H
장기 유동화증권	662,710	662,910	593,568	701,832	897,766	763,890	969,805
KHFC MBS	1,478,110	1,401,029	1,562,399	1,498,526	1,286,452	1,346,223	1,253,672
ABCP	1,566,683	987,806	834,455	897,753	1,136,954	1,068,871	970,152
ABSTB	408,226	436,617	432,007	450,123	543,282	522,728	592,639
합계	4,115,729	3,488,362	3,422,429	3,548,234	3,864,454	3,701,712	3,786,268
(증감율)	10.4	-15.2	-1.9	3.7	8.9	10.9	2.3

2. 장기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2026년 상반기 사채 발행 감소

장기 유동화증권 중 사채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ABS와 상법상 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AB사채로 이루어져 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ABS는 2026년 상반기 7.2조원이 발행되어 전년 동기 대비 34.0% 감소하였으며, 상법상 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AB사채는 7.3조원이 발행되어 전년 동기 대비 44.5%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KHFC MBS는 수익증권 형식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9.3조원이 발행되어 전년 동기 대비 139.0% 증가하였다.

[표 4] 장기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단위: 억원, 개,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5.1H	26.1H
사 채	유동화 전문회사	발행금액	171,365	156,994	173,135	161,544	201,159	109,676	72,390
		발행회사수	83	79	90	94	110	55	49
	상법상 유동화회사	발행금액	214,157	173,172	93,544	105,796	134,790	50,547	73,034
		발행회사수	1,145	1,027	630	582	740	334	280
	소계	발행금액	385,522	330,166	266,679	267,340	335,948	160,223	145,424
		(증감율)	1.4	-14.4	-19.2	0.2	25.7	46.2	-9.2
수 익 증 권	KHFC MBS	발행금액	344,644	150,253	334,035	164,611	106,803	39,052	93,346
		발행건수	26	20	36	24	17	7	15
	합계	발행금액	730,166	480,419	600,714	431,951	442,751	199,275	238,770
		발행회사(건)수	1,254	1,126	756	700	867	396	344

2026년 상반기 ABS 발행규모가 감소한 것은 장기물에 대한 투자수요가 위축된 데 주로 기인한다. 한편, AB사채 발행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미공시 비중이 72.9%로 높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시중금리 상승과 기존 유동화 익스포저의 만기 도래 등을 감안할 때, 차환 및 만기연장 수요가 발행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 유동화증권의 만기구조

장기 유동화증권
가중평균 만기
축소

장기 유동화증권 중 사채의 가중평균 만기는 2026년 상반기 2.28년으로 전년 동기 2.50년 대비 축소되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ABS의 가중평균 만기가 2.06년으로 전년 동기 2.58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상법상 유동화회사가 발행한 AB사채의 가중평균 만기도 1.78년으로 전년 동기 2.32년 대비 축소되었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장기 자금조달에 대한 발행자의 부담이 커지고, 투자자의 장기물 수요도 위축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발행회사 유형별 장기 유동화증권 만기 구조

(단위: 억원, 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5.1H	26.1H
사 채	유동화 전문회사	1년 미만	35,040	35,545	32,990	14,230	27,570	14,115	12,770
		1년~3년 미만	68,349	65,430	97,205	32,901	93,833	44,320	37,689
		3년~5년 미만	59,758	43,864	40,584	20,058	77,238	49,387	20,708
		5년~10년 미만	842	-	2,355	2,848	1,718	1,054	1,223
		10년 이상	7,376	12,155	-	91,507	800	800	-
		소계	171,365	156,994	173,135	161,544	201,159	109,676	72,390
		(가중평균 만기)	2.91	3.38	1.97	0.94	2.40	2.58	2.06
	상법상 유동화 회사	1년 미만	88,913	44,271	36,382	9,838	23,052	9,522	19,447
		1년~3년 미만	82,048	86,051	35,897	23,440	65,152	28,201	26,669
		3년~5년 미만	26,675	20,064	11,631	3,236	26,291	7,600	17,061
		5년~10년 미만	15,794	20,981	6,033	1,351	14,082	4,214	9,344
		10년 이상	727	1,805	3,600	67,931	6,213	1,010	512
		소계	214,157	173,172	93,544	105,796	134,790	50,547	73,034
		(가중평균 만기)	1.76	2.48	3.37	1.33	3.46	2.32	1.78
	합계		385,522	330,166	266,679	267,340	335,948	160,223	145,424
	(가중평균 만기)		2.31	2.91	2.46	1.09	2.83	2.50	2.28
수 익 증 권	KHFC MBS	1년 미만	-	-	-	-	-	-	-
		1년~3년 미만	69,484	17,350	56,007	48,694	29,348	11,408	26,385
		3년~5년 미만	41,100	17,100	34,300	17,600	13,000	4,800	17,715
		5년~10년 미만	154,226	71,909	132,736	53,118	35,119	13,109	26,750
		10년 이상	79,834	43,894	110,992	45,199	29,336	9,735	22,496
		소계	344,644	150,253	334,035	164,611	106,803	39,052	93,346
		(가중평균 만기)	6.22	7.27	7.62	7.07	7.32	7.02	6.83

KHFC MBS는 선순위증권의 경우 만기 1년부터 30년까지 총 9종으로 발행되며, 이와 별도로 만기 31년의 후순위증권 1종이 발행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중 발행된 KHFC MBS의 가중 평균 만기는 6.83년이다.

KHFC MBS 발행 현황

선순위 KHFC MBS: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발행

KHFC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자기신탁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선순위 수익증권의 원본과 예정배당수익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선순위 MBS는 모두 AAA 등급으로 발행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및 특례보증자리론 종료의 영향으로 202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KHFC MBS 발행금액은 2026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로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금융 지원과 우대금리 제공 등 정책적 지원이 보증자리론 수요를 뒷받침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KHFC MBS 발행 현황

						(단위: 억원, 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5.1H	26.1H
선순위	344,474	149,450	332,607	164,094	106,548	38,908	92,985
후순위	170	803	1,428	517	255	144	361
합계	344,644	150,253	334,035	164,611	106,803	39,052	93,346
발행건수	26	20	36	24	17	7	15

자산 유형별 ABS 발행 현황

ABS는
매출채권과 CDO
비중이 높음

2026년 상반기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ABS는 매출채권과 CDO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매출채권 유동화는 주로 단말기 할부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CDO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성 CDO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 PF 유동화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 제공된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금융 유동화는 오토론과 신차·중고차 할부대출채권 및 리스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6년 상반기 ABS 발행규모는 7.2조원으로 전년 동기 11.0조원 대비 약 34.0% 감소하였다. 이는 금리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PF 유동화 발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성 CDO 발행규모도 축소된 데 기인한다.

자산 유형별 AB사채 발행 현황

AB사채는
미공시
비중이 높음

상법상 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AB사채는 2012년 4월 상법이 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대부분 미공시로 발행되어 자산유형 및 등급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사모로 발행되면서, 등급이 없거나 미공시되는 AB사채 비중이 총 AB사채 발행금액 대비 72.9%(2026년 상반기 기준)로 미공시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2026년 상반기 AB사채 발행규모는 금리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7.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5% 증가하였다. 미공시 비중이 높아 정확한 발행 배경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장기물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대되었다기보다는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 방식의 차환 및 만기연장 수요가 발행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유동화자산 유형별 장기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5.1H	26.1H
유동화 전문회사 (ABS)	CDO	61,612	48,196	47,989	51,888	51,772	32,215	18,864
	정기예금	-	-	-	-	-	-	-
	매출채권	71,145	59,620	62,230	58,550	53,310	25,495	21,520
	소비자금융	6,556	19,124	43,766	31,869	26,621	13,930	16,054
	카드구매대금	-	-	-	-	-	-	-
	부동산 PF	14,152	7,559	19,150	17,510	68,005	37,849	15,252
	MBS	-	-	-	-	-	-	-
	미확인	17,900	22,495	-	1,728	1,451	188	700
	소계	171,365	156,994	173,135	161,544	201,159	109,676	72,390
상법상 유동화 회사	CDO	37,231	75,613	8,714	13,238	20,839	5,188	12,782
	정기예금	14,408	7,230	2,142	2,219	2,296	1,178	471
	매출채권	3,020	-	-	240	100	100	100
	소비자금융	-	390	-	-	-	-	-
	카드구매대금	-	1,500	-	-	9	-	400
	부동산 PF	22,549	15,466	4,422	31,383	11,384	6,274	6,062
	MBS	-	-	-	-	-	-	-
	미확인	136,949	72,973	78,266	58,715	100,162	37,806	53,219
	(미확인 비중)	63.9	42.1	83.7	55.5	74.3	74.8	72.9
	소계	214,157	173,172	93,544	105,796	134,790	50,547	73,034
합계		380,040	385,522	330,166	267,340	335,948	160,223	145,424

자료) 2021년까지 소비자금융에는 카드구매대금이 포함

ABS 및 AB사채의 신용등급 현황

ABS: AAA 위주
AB사채: 무등급 위주

장기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분포를 보면 ABS와 AB사채는 뚜렷하게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ABS는 2026년 상반기 기준 AAA 등급으로 발행된 비중이 95.4%로 절대적인 반면, AB사채는 무등급 또는 신용등급 미공시 비중이 72.9%로 가장 높다. 이는 ABS가 주로 신용도가 높은 자산을 기초로 공모 방식으로 발행되는 반면, AB사채는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 방식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B사채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모 방식으로 주로 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등급 또는 신용등급이 공시되지 않은 사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모 AB사채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고, 공모채에 비해 신용평가 및 신용등급 공시 관련 규제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표 8] ABS 및 AB사채 신용등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5.1H	26.1H
유동화 전문회사 (ABS)	AAA	161,109	151,819	155,759	149,411	176,685	98,113	69,063
	AA	7,322	2,500	16,345	6,400	19,736	9,576	770
	A	685	1,260	35	675	750	260	440
	BBB	819	998	396	1,268	1,232	609	572
	BB 이하	700	417	600	2,063	1,303	930	845
	무등급	730	-	-	1,728	1,451	188	700
	소계	171,365	156,994	173,135	161,544	201,159	109,676	72,390
상법상 유동화 회사	AAA	17,193	17,551	6,036	19,165	3,235	1,265	11,504
	AA	13,256	8,232	5,454	18,049	18,186	6,422	4,045
	A	9,087	1,288	2,058	8,086	10,186	2,923	3,016
	BBB	2,594	1,801	1,730	1,781	3,021	2,131	1,250
	BB 이하	-	298	-	-	-	-	-
	무등급	172,027	144,002	78,266	58,715	100,162	37,806	53,219
	소계	214,157	173,172	93,544	105,796	134,790	50,547	73,034
합계		385,522	330,166	266,679	267,340	335,948	160,223	145,424

3. 단기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2026년 상반기
단기 유동화증권
349.8조원 발행

단기 유동화증권은 ABCP와 ABSTB로 구성된다. 유동화전문회사도 일부 ABCP를 발행하고 있으나, 단기 유동화증권의 대부분은 상법상 유동화회사가 발행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단기 유동화증권 발행규모는 ABCP 152.8조원, ABSTB 197.0조원으로 총 349.8조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하였다.

2026년 상반기 단기 유동화증권의 발행건수는 2,64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단기 유동화증권은 전년 동기에 이어 발행금액과 발행건수 모두 증가세를 이어갔다.

[표 9] 단기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단위: 억원, 개,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5.1H	26.1H
ABCP	유동화 전문회사	발행금액	2,108	2,312	12,551	24,124	36,000	18,000	17,000
		발행건수	8	12	24	26	24	12	12
	상법상 유동화회사	발행금액	2,341,312	1,913,727	1,728,349	1,911,481	2,871,289	1,309,264	1,510,838
		발행건수	1,447	1,279	1,096	1,038	1,173	763	760
ABSTB	상법상 유동화회사	발행금액	2,228,895	3,133,766	2,730,282	2,430,494	3,540,062	1,720,044	1,969,826
		발행건수	2,653	2,960	2,477	2,117	2,279	1,698	1,877
합계		발행금액	4,572,315	5,049,805	4,471,182	4,366,100	6,447,351	3,047,308	3,497,664
		(증감율)	14.1	10.4	-11.5	-2.4	47.7	50.0	14.8
		발행건수	4,108	4,251	3,597	3,181	3,476	2,473	2,649
		(증감율)	25.8	3.5	-15.4	-11.6	9.3	4.7	7.1

단기 유동화증권은 2013년 이후 신용등급 공시 의무화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발행 신용등급이 모두 공시되고 있다. ABCP와 ABSTB 간 신용등급별 구성에 큰 차이가 없어 이를 통합하여 살펴보면, 단기 유동화증권에서 A1 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0] 단기 유동화증권 신용등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5.1H	26.1H
A1	4,028,603	4,381,824	3,887,237	3,855,520	5,894,107	2,758,690	3,230,361
(A1 비중)	88.1	86.8	86.9	88.3	91.4	90.5	92.4
A2	421,107	542,109	513,698	439,650	478,892	246,601	237,943
A3	108,705	121,641	66,098	68,226	71,565	40,613	28,044
B 이하	13,900	4,232	4,149	2,703	2,787	1,405	1,316
합계	4,572,315	5,049,805	4,471,182	4,366,100	6,447,351	3,047,308	3,497,664

단기 유동화증권의 자산 유형별 발행 현황

ABCP와 ABSTB의
자산 구성 상이

ABCP와 ABSTB는 기초자산 유형별 구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ABCP는 CDO, 정기예금 및 부동산 PF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ABSTB는 부동산 PF, CDO 및 카드구매대금 채권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6년 상반기 ABCP 발행규모는 CDO와 부동산 PF 유동화의 증가에 힘입어 총 152.8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 132.7조원 대비 15.1% 증가하였다. ABSTB 발행규모도 부동산 PF와 카드구매대금채권 유동화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총 197.0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 172.0조원 대비 14.5% 증가하였다.

2026년 CDO 및 카드구매대금채권 유동화 발행규모는 유동화증권 만기 단기화에 따른 차환 발행 확대, 회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단기 유동화시장 조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PF는 부실 PF 규모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는 가운데,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행규모가 확대되었다.

[표 11] 유동화자산 유형별 단기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5.1H	26.1H
ABCP	CDO	625,176	578,909	681,205	696,125	1,277,054	565,071	700,903
	정기예금	1,284,010	971,485	712,579	863,038	1,201,368	561,560	575,397
	매출채권	55,697	37,301	19,963	15,056	9,027	6,259	2,377
	소비자금융	51,989	2,820	12,870	24,600	36,000	18,000	17,000
	카드구매대금	-	22,916	34,330	46,501	92,283	37,335	24,218
	부동산 PF	322,315	300,297	278,703	290,162	291,557	139,039	207,943
	MBS	4,233	2,312	1,251	124	-	-	-
	소계	2,343,420	1,916,039	1,740,900	1,935,605	2,907,289	1,327,264	1,527,838
ABSTB	CDO	760,167	1,027,749	841,154	828,323	1,263,841	657,610	664,468
	정기예금	12,045	15,094	7,671	18,316	100,506	33,417	41,352
	매출채권	73,698	56,882	57,316	21,030	22,330	10,670	12,491
	소비자금융	116,558	11,600	12,000	12,050	10,240	6,190	2,950
	카드구매대금	-	223,670	182,515	250,341	359,742	175,156	216,774
	부동산 PF	1,263,478	1,798,771	1,629,627	1,300,435	1,783,403	837,001	1,031,790
	MBS	2,950	-	-	-	-	-	-
	소계	2,228,895	3,133,766	2,730,282	2,430,494	3,540,062	1,720,044	1,969,825
합계		4,572,315	5,049,805	4,471,182	4,366,100	6,447,351	3,047,308	3,497,664

단기 유동화증권 만기 구조

ABCP와 ABSTB의 만기 구조 상이

ABCP와 ABSTB는 모두 단기 유동화증권에 해당하지만 만기구조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두 유형 모두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구간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ABCP는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의 상대적 장기물 비중도 높은 반면, ABSTB는 3개월 이하의 단기물 비중이 절대적인 수준이다.

이는 ABCP의 경우 만기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의 정기예금 유동화가 주로 ABCP 형태로 발행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ABSTB의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관련된 제도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ABSTB는 공모로 발행되더라도 만기가 3개월 이하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공모 방식의 단기 유동화증권이 주로 만기 3개월 이하의 ABSTB로 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상반기에는 ABCP와 ABSTB 모두에서 발행만기의 단기화가 나타났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ABCP의 가중평균 만기는 119.5일로 전년 동기 161.3일 대비 41.8일 단축되었으며, ABSTB의 가중평균 만기도 52.4일로 전년 동기 55.0일 대비 2.6일 짧아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만기가 길게 형성되는 ABCP에서 단기화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12] 단기 유동화증권 만기 구조

(단위: 억원, 일)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5.1H	26.1H
ABCP	1주일 이하	6,038	3,724	4,098	5,214	14,358	7,161	2,973
	~ 1개월 이하	92,847	129,350	113,737	122,366	84,117	38,308	113,865
	~ 3개월 이하	569,795	635,683	636,210	677,703	1,178,894	521,697	816,737
	~ 6개월 이하	395,227	364,317	462,530	519,236	805,394	356,374	402,138
	~ 12개월	1,279,512	782,966	524,325	611,086	824,527	403,725	192,125
	소계	2,343,420	1,916,039	1,740,900	1,935,605	2,907,289	1,327,264	1,527,838
(가중평균 만기)		230.1	185.0	162.3	166.0	158.2	161.3	119.5
ABSTB	1주일 이하	112,947	144,293	76,419	92,270	201,173	96,361	161,000
	~ 1개월 이하	670,665	1,164,670	877,952	681,611	1,154,360	593,623	676,608
	~ 3개월 이하	1,444,521	1,823,276	1,774,686	1,654,911	2,182,690	1,028,743	1,131,950
	~ 6개월 이하	754	663	357	476	109	109	10
	~ 12개월	8	863	869	1,227	1,730	1,208	258
	소계	2,228,895	3,133,766	2,730,282	2,430,494	3,540,062	1,720,044	1,969,826
(가중평균 만기)		59.2	54.0	58.6	61.0	55.0	55.0	52.4
합계		4,572,315	5,049,805	4,471,182	4,366,100	6,447,351	3,047,308	3,497,664

단기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차환발행 보정)

ABCP와 ABSTB
모두
기존 발행 감소,
신규 발행 증가

단기 유동화증권은 만기 시 차환발행되는 비중이 높아 총 발행금액을 단순 합산할 경우 차환 횟수가 많을수록 실질적인 유동화 거래 규모가 과대 계상될 수 있다. 이에 차환발행에 따른 중복 금액을 제외한 발행규모를 별도로 집계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표 13]은 동일 유동화회사의 연간 발행실적을 1건으로 한정하여 집계함으로써 차환발행금액을 제거한 수치이다. 동일 유동화회사가 연중 여러 차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각 회차의 발행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최대 발행금액을 집계금액에 반영하였다

2026년 상반기 ABCP 발행규모는 총 108.3조원으로 전년 동기 102.8조원 대비 5.3%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집계연도 이전부터 유가증권을 발행해 온 유동화회사(이하 ‘기존 유동화회사’)의 발행규모는 42.5조원으로 전년 동기 50.6조원 대비 감소한 반면, 집계연도 중 신규로 설립된 유동화회사(이하 ‘신규 유동화회사’)의 발행규모는 65.8조원으로 전년 동기 52.3조원 대비 증가하였다.

2026년 상반기 ABSTB 발행규모는 총 92.7조원으로 전년 동기 81.7조원 대비 13.4%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기존 유동화회사의 발행규모는 30.0조원으로 전년 동기 52.8조원 대비 감소한 반면, 신규 유동화회사의 발행규모는 62.7조원으로 전년 동기 29.0조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13] 단기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차환발행 보정)

(단위: 억원,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5.1H	26.1H
ABCP	기존	발행금액	521,999	438,266	417,878	530,602	810,120	505,557	424,519
		발행건수	607	602	556	556	562	445	301
	신규	발행금액	1,285,475	942,747	679,624	711,847	1,034,105	522,807	658,473
		발행건수	848	689	564	508	635	330	471
ABSTB	기존	발행금액	428,307	452,228	484,865	440,039	566,415	527,684	300,030
		발행건수	1,218	1,621	1,774	1,399	1,226	1,208	664
	신규	발행금액	447,564	493,439	325,016	373,896	646,078	289,688	626,928
		발행건수	1,554	1,339	703	718	1,053	490	1,213
합계	기존	발행금액	950,306	890,494	902,743	970,640	1,376,535	1,033,241	724,548
		발행건수	1,825	2,223	2,330	1,955	1,788	1,653	965
	신규	발행금액	1,733,039	1,436,186	1,004,640	1,085,743	1,680,183	812,495	1,285,401
		발행건수	2,402	2,028	1,267	1,226	1,688	820	1,684

2026년 상반기 기존 유동화회사의 발행금액은 정기에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유형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신규 유동화회사는 부동산 PF와 CDO를 중심으로 발행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표 14] 단기 유동화증권 자산유형별 발행 현황(차환발행 보정)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5.1H	26.1H
기존	CDO	319,799	301,091	308,461	34,518	490,755	453,542	299,491
	정기에금	235,886	195,807	182,107	264,276	402,605	167,564	205,230
	매출채권	35,437	12,054	16,001	6,715	6,176	5,675	4,036
	소비자금융	102,498	3,425	3,400	9,300	11,800	11,800	10,600
	카드구매대금	-	63,479	64,797	83,448	165,096	127,488	82,597
	부동산 PF	253,412	314,408	327,831	272,319	300,103	267,171	122,594
	MBS	3,275	229	145	64	-	-	-
	소계	950,306	890,494	902,743	970,640	1,376,535	1,033,241	724,548
신규	CDO	190,367	205,384	193,051	227,554	395,312	204,220	413,890
	정기에금	1,044,747	778,668	492,310	508,362	773,582	399,961	376,707
	매출채권	27,976	20,179	6,767	1,758	1,194	374	862
	소비자금융	42,126	500	5,300	300	-	-	-
	카드구매대금	-	62,081	76,955	64,796	75,572	25,353	77,749
	부동산 PF	427,526	369,374	230,256	282,973	434,522	182,588	416,193
	MBS	298	-	-	-	-	-	-
	소계	1,733,039	1,436,186	1,004,640	1,085,743	1,680,183	812,495	1,285,401
합계		2,683,345	2,326,680	1,907,383	2,056,384	3,056,718	1,845,737	2,009,950

4. 2026년 상반기 요약 및 2026년 하반기 전망

2026년 상반기 유동화증권 시장에서는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의 듀레이션 부담 증가로 장기 유동화증권 발행이 감소한 반면, CDO 및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단기 유동화증권 발행은 증가하였다. CDO는 유동화증권 만기 단기화에 따른 차환발행 증가 등이 발행을 뒷받침 하였고, 부동산 PF 유동화는 PF 사업장의 만기연장·재구조화 및 일부 사업장의 본 PF 전환에 따른 자금수요가 발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시중금리 상승으로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의 상대적 매력력이 부각되면서 MBS 발행도 확대되었다.

2026년 하반기에는 물가, 환율, 주택가격 등 금융안정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리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유동화증권 발행 여건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과정에서의 차환 및 신규자금 공급 수요, 회사채시장의 순상환 기조 지속, 비우량 기업의 유동화시장 조달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 PF 및 CDO 발행 감소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유의사항]

- (1) 한국기업평가(주)(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6, Korea Ratings Inc.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

KRIR 2026-026, 2026-07-24